모든 길은 왕궁으로… 황룡사 창건 '핵심'

윤선태 교수, 경주문화재硏 창립 30주년 세미나서

궁궐로 짓다가 사찰된 황룡사
철저한 도시계획 통해 창건돼
황룡사 등 前大路 왕궁 향해
'중국 리방제 모방' 학설 반박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신라를 대표하는 사찰인 황룡사의 부지는 본래 궁궐로 지으려고 했던 곳이다.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에 따르면 새 왕궁을 지으려고 했으나 황룡이 나타나는 이적을 보고 그곳에 '황룡사'를 세웠다고 한다. 사찰연기설화로만 전해지는 황룡사의 창건이 신라 특유의 철저한 도시계획 속에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라사 전문가인 윤선태 동국대 역사교육학과 교수는 8월 21일 열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신라 왕도와 국가사찰'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최근 나타난 황룡사지 발굴 성과를 살폈는데, 특히 2016~2019년 진행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발굴한 남쪽대로 및 광장 터 발굴조사 결과에 주목했다. 조사 결과 길이 500m, 너비 50m의 대로가 황룡사 남문 남쪽 광장부터 서쪽의 안압지 인근 신라 궁궐의 동문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황룡사와 남쪽 동서대로가 신라 왕궁의 장엄과 밀접히 관련됐음을 보여준다는 게 윤 교수의 설명이다.

궁궐로 지을 부지에 황룡사를 세운 이유도 철저한 계획 속에 이뤄졌다. 윤 교수는 신라 왕궁인 월성과의 관계를 살폈다. 그에 따르면 황룡사가 건립되기 전 부지는 거대한 습지로 이름하여 '용궁'으로 불렸다. 하지만 신라인들은 자신들의 독창적인 토목기술로 사찰을 세웠고, 현재 안압지(월지) 주변 공간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신라 황룡사지 전경. 최근 발굴을 통해 대로들이 확인됐는데 이는 월성을 중심으로 계획된 구조물로 추정된다.

윤 교수는 "월지 주변을 월성과 연결해 궁궐 공간을 확장한다면 월성의 기존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관청 간 인적 · 물적 자원을 황룡사지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황룡사지보다 궁궐을 건설할 보다 적합한 땅이 생길 수 있는데, 굳이 황룡사지에 궁궐을 조성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고 이는 후일 만월성 건립으로 실현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신라 중후기로 넘어가면 월성은 동북쪽 안압지 권역 등 사방으로 증축돼 만월성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황룡사를 비롯한 흥륜사, 영묘사, 사천왕사 등 국찰들은 왕의 권력을 더욱 돋보이게 장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는 게 윤 교수의 주장이다.

윤 교수는 주장의 근거로 황룡사와 왕성 사방에 자리한 국찰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전대로(前大路)'가 확인되는 것을 들었다.

윤 교수는 "국찰의 전대로와 왕궁의 중요한 누각을 갖춘 대문들은 시각적으로 이어져 왕경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왕궁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역으로 왕은 왕궁 대문의 문루에 올라 각 방면으로 열려 있는 사찰의 전대로를 통해 만민을 굽어 살피고 자신의 손짓 하나로 왕경인들의 일상이 작동하는 왕의 힘을 보여주려고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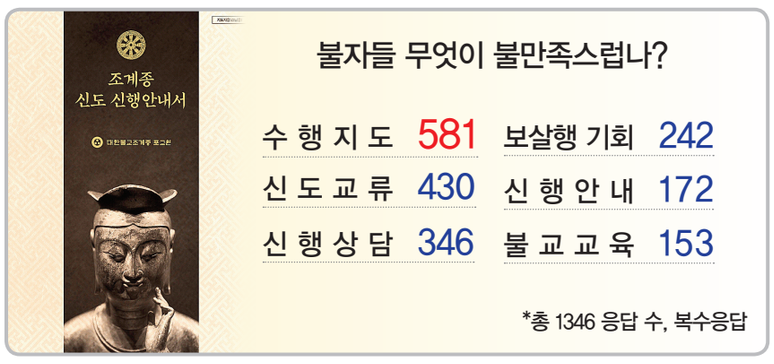
윤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기존 신라 왕경이 중국 당나라 장안성의 리방제 도시계획을 모방했다는 기존의 학설을 반박하는 것이라서 더 눈길을 끈다.

그는 "그간 신라 왕경 연구는 중국 도성사의 발달과정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가져와 신라왕경을 완벽하게 통일적으로 작도했다"고 지적하며 "신라 왕궁의 사방에 배치되어 왕궁을 장엄했던 국찰의 전대로와 그 방향성으로 볼 때, 왕경 계획의 기본적인 중축선은 월성과 그 확장된 궁궐인 만월성이 기준이었다"고 밝혔다.

조계종 신도 신행요구 "수행지도 받고 싶어요"

〈포교원 신도신행안내서〉 발간
신도 인식 분석 자료 발표

1500여명 신도 대상 조사
'수행법 지도 부족' 과제로
매주 1회 신행 불자 50.5%
법회참여 대표적 신행수단



조계종 신도들은 사찰에서 참선과 명상 등 각종 수행법에 대해 배우고 싶어하는 반면 요구에 비해 적절한 수행지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최근 스님들이 사찰에서 신도들의 신행활동을 이끌 때 참고할 수 있는 〈조계종 신도 신행안내서〉를 발간했다.

사찰 신행활동 지도용 안내서인 〈조계종 신도 신행안내서〉는 포교연구실에서 제1차 서울, 제2차 부산, 제3차 광주 등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고, 각 지역별 모범사찰을 방문하여 기초자료를 분석했다. 여기에 1500여명의 포교사와 신도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집대성한 기초자료를 종합 분석한 신행안내서다.

신행안내서에 함께 실린 신행요구 분석자료에 따르면 조계종 신도들은 수행법 지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장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을 기반으로 총 1346명의 응답자 중 581명이 수행지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신도들과의 교류, 친목 미흡'이 430명, '개인신행상담의 부족함'이 346명 등으로 나타났다. 불교교리 교육에 대한 개선은 153명, 신행활동 전반 안내 및 교육에 대한 요구는 172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양한 불교대학을 운영하여 사찰에서 불교교리에 대한 교육분야의 접근성은 크게 개선된 반면 신도들에게 맞는 신행상담과 안내, 수행법 지도 등이 추가적으로 개선되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계종 신도들의 신행활동 정도에서는 조계종 신도들은 매주 1회 이상 사찰을 참배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신행활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 1468명이 응답한 가운데 매주 1회 이상이 742명으로 50.5%를 기록했으며, 매월 1회 이상 사찰을 참배하고 부정기적 신행활동이 580명으로 39.5%, 매년 2~3회 사찰 참배가 98명으로 6.7% 등으로 나타났다.

신행활동별 실천빈도를 보면 5점 만점 기준으로 대부분이 3점대의 빈도수를 기록했지만, 법회가 3.36점으로 가장 높은 신행활동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실천 일환인 자원봉사는 3.30점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에 반해 참선을 비롯한 명상이 2.83점으로 가장 낮았다. 절과 염불, 간경 등은 3.11~3.24로 실천 내용 중 중위권을 형성했다.

포교원은 연구분석 조사결과에 대해 "신행안내와 교육은 있지만 구체적인 지도가 부족하며,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신행활동을 위해 주지 스님을 비롯한 소임자들의 관심이 가장 필요하다"며 "신행관련 종단 제도와 시스템,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포교원은 "신행 안내를 돕기 위해 이번 신행안내서 뿐만 아니라 사찰 신행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단계별 신행매뉴얼을 제작할 것이다. '새신도' '신진신도' '중견신도' '원로신도' 등으로 구분해 단계별 신행안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제시했다. 또 기존 승가교육기관 및 불교대학과 연계하여 신행문화 개선을 위한 신행지침 안내 등을 꾸준히 펼쳐나갈 것을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계종 신도신행안내서〉에는 연령별 신행, 가족의례 프로그램 등을 담은 '신행 지침 활용을 위한 신행 프로그램 안내' 등도 함께 수록됐다. 포교원은 조계종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신도신행안내서를 공개했으며, 향후 전국 교구본사와 전법중심도량, 불교대학 등에 우편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사찰을 새로 찾은 신도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일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 스님들의 역량과 역할이 절실한 상황인 것"이라며 "포교원에서 〈조계종 신도 신행안내서〉를 펴내게 된 것도 그러한 까닭"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코로나 극복 〈법화경〉 기도 회향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정분남)은 8월 23일 지역단 회의실에서 '국운융창 발원 법화경 기도' 회향식을 봉행했다.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627명은 6월 15일 법화경 독송기도에 입재했으며 70일간 매일 한권씩 독송했다. 회향식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분남 단장을 비롯해 임원진 등 10여 명이 동참했다. 삼귀의 및 예불 후 법화경 28품을 마지막으로 함께 독송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기도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총 28품인 법화경을 릴레이 형태로 28명이 매일 독송한다.

정분남 단장은 "법화경 10품에 오종법사에 대한 내용을 읽을 때 마다 우리 포교사단의 역할을 마음에 다시 되새길 수 있었다. 인생의 길을 비추는 법화경을 독송하며 함께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간송 소장 보물 불상 2점, 국립중앙박물관서 구입

재정난에 5월 경매 출품돼 유찰
국립중앙博서 자체예산으로 구입
휴관 끝나고 상설전시실서 공개

재정난으로 간송미술문화재단이 경매에 내놓았던 보물 불상 2점을 국립중앙박물관이 구입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올해 5월에 경매시장에 출품됐던 간송미술문화재단(이하 간송재단) 소장 불상 2점을 최근 자체 예산으로 구입했다"고 8월 24일 밝혔다.

지난 1963년 1월 21일 나란히 보물로 지정된 '금동여래입상(보물 제284호)'과 '금동보살입상(보물 제285호)'이 간송재단을 떠나게 된 것은 누적된 재정난 때문이다. 간송재단은 지난 5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불상 2점을 경매 시장에 출품하겠다고 알렸다. 경매 시작가는 각각 15억 원이었으나 결과는 유찰이었다.

당시 "故 간송 전형필 선생이 남긴 우리 문화재 수호 정신이 훼손되는 것 같아 참담하다", "국가에서 구입해야 한다" 등의 여론이 일었다.

이후 6월 중순 경 간송재단과 경매사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제일 먼저 구입 의사를 타진했고,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이 규정 검토 후 7월 말 자체 예산으로 구입을 결정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故 간송 전형필 선생의 큰 뜻을 이어 받아 국민 모두의 문화재로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불상을 구입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두 불상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과학적 조사와 학술적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잠정 휴관 중인 박물관이 재개관하는 시점에 맞춰 상설전시실에서 전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송재단 소장 '금동여래입상(보물 제284호, 사진 왼쪽)'과 '금동보살입상(보물 제285호, 사진 오른쪽)'.

신성민 기자

대불련 동문 만해 선양에 한마음

대불련 · 대불련 총동문회 제1회 만해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불련 총동문회(회장 홍경희)는 8월 24일 서울 홍성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1회 만해 한용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불련 총동문회와 대불련, 대불련 동문들이 만든 만해 한용운연구소 등 3개 단체가 함께 진행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경희 대불련 총동문회장, 이근창 대불 이사, 이창경 신구대 교수(만해한용운연구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모전은 '만해,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만해 한용운 고난의 칼날에 서라〉 독후감, UCC 영상(애니메이션, 웹툰, 카드뉴스, 오디오북), 창작곡(성악곡 및 기악곡)등 3개 부분에 걸쳐 진행된다.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도 응모 가능하며 출품에는 제한이 없다.

독후감은 3000자 이상 한글파일로 제출하면 되며, 창작곡은 1~3분 이내 악보 mp3 노래와 반주 포함된 AR파일 양식이어야 한다.

UCC는 이미지는 가로 세로 2000 픽셀 이상 해상도에 30MB 이내 작품이면 가능하다. 동영상은 1~3분 이내로 1280×720 해상도에 200MB 이내여야 한다.

출품 마감시간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로 공모전 홈페이지(www.manhaesnim.com)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콘텐츠 최우수상 1명(1팀)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며, 우수상 70만원(4명 혹은 4팀), 장려상 10만원(20명 혹은 20팀)을 각각 수여한다.

이번 공모전에 대해 홍경희 대불련 총동문회장은 "대불련과 만해 스님을 주제로 하는 첫 공모전인 만큼 많은 대학생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만해 스님의 사상이 확산되고 대학생 불자들과 대불련 동문들이 원력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불교논문 '인성교육' '식문화' 눈길

불교박사 15명에 석사 24명 논문 나와

동국대 가을학기 논문으로 최근 사회변화와 불교와의 접점을 모색한 논문이 대거 발표됐다.

동국대에 따르면 올해 가을학기 박사학위 수여자 122명 중 불교박사는 15명으로 불교 주제의 박사학위 논문은 △강경숙 불교학과 박사의 '천태지의 감응사상의 종교성에 관한 연구' △인도철학과 세인 스님의 '한국 불교의례의 인도적 연원과 설행' △김택단 선학과 박사의 '영가 현각의 선종영가집에 나타난 천태지관 연구' △레빗프엉타오 박사의 '근세 한국과 베트남 선불교 연구' △박상준 미술사학과 박사의 '고려전기 탑비 연구' △불교학과 박사 법오 스님의 '김대현의 술몽쇄언 연구' △송승훈 선학과 박사의 '신플라톤주의와 밀교의 수행 비교, 관상과 관불을 중심으로' △불교학과 박사 행진 스님의 '전통사찰의 풍수지리적 입지 연구' △국어교육학과 자현 스님의 '한암 중원의 선불교와 교육사상 연구' △유소정 불교학과 박사의 '불교명상과 인성교육의 관계' △불교학과 박사 혜인 스님의 '신라 도륜의 유가사지 주석과 인용방식 연구' △전민지 불교학과 박사의 '대보적경 연구' △전헌열 불교학과 박사의 '고려시대 불교사원경제 연구' △최건업 불교학과 박사의 '분황 원효의 수행관 연구' △한수진 불교학과 박사의 '불교 계율에 나타난 식문화 연구' 등이다.

한편, 동국대 전체 석사학위 수여자 340명 중에는 불교 주제는 24명으로 나타났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창원 진불선원, 禪 통한 행복 찾기 특강

선불교대학 총동문회, 신규탁 교수 초청강좌

창원 진불선원이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를 초청해 특별강좌를 개최했다. 진불선원(주지 무아)은 8월 22일 진불선원 3층 보문당에서 선(禪)을 통한 발심과 행복 찾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삼귀의 △한글반야심경봉독 △학장 무아 스님 인사말 △박종배 진불선원 총동문회장 인사말 △신규탁 교수 특강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신규탁 연세대 교수는 불교와 선, 선과 선어록, 선수행(발심과 행복)을 중심으로 강의를 이어갔다. 아울러 인연법과 선 수행 실천을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